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약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2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3(통57). 즐겁게 안식할 날 다함께

♠ 공동기도

오, 하나님. 제 가슴에서 모든 미움을 없애주시고, 다른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미움마저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주시어 미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당신 명령의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주시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은 물론 원수들까지도 거절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법도 가르쳐주십시오.

주님의 평화를 위해 일하되, 그동안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들과도 함께 주님의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아프리카의 작가, 앨런 패튼의 기도문)

♠ 참회의 침묵기도

♠ 위로의 말씀 요14:27

♠ 교 독 문 85. 요한1서 4장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김서현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 양 288(통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봉독 I. 잠3:18-22 임해나 학생

..... II. 눅12:49-50 임주빈 집사

찬 양

말 씬 I. 우아한 장식물 이성운전도사

..... II. 작은 불꽃 하나가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찬 송 475(통272). 인류는 하나 되게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자신의 마음 속 화로에서 타고 있는 불이 어떤 불인지 살피며 사십시오. 탐욕의 불꽃은 사그라지게 하고 생명과 평화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내 안에서 타고 있는 불이 어떤 불인지 살피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욕망과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내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까맣게 태우던 옛 생활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전해주시는 참된 사랑과 소망의 햇살을 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100년의 이야기 / 김재흥
기도 : 이한림 권사	기도: 노순옥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말테 리노 목사	조지연 선생 김인걸 장로	최명하 학생 곽상준 집사

10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전총길 안정숙 허정윤 최영혜				
	헌금위원	방문성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약한 이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세상

... 마음을 약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들에게 있어 마음이란 고통과 분노, 혼돈과 덧없는 감정의 집합소다. 하여 그들은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처럼 지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없는 사람일뿐이다.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너와 나 같이 힘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존재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

세계의 역사는 분쟁의 역사이다. 어느 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길 좋아한다. 약한 것은 잡아먹히기 딱 좋다.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룹을 짓고 힘을 모은다. 그런 과정에서 분쟁은 쉽게 일어난다. 각 그룹은 나름의 확신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안전을 누리려 한다. 그런 확신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다른 그룹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 무관심과 멸시, 불신이 싹튼다.

모든 분쟁에는 세 가지 공통 요소가 있다. 첫째: 자신의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며 신에 의해 선택된 그룹이라는 확신. 다른 모든 그룹들은 우리 그룹을 본보기 삼아 뒤따라야 하거나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한다. 세계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다른 그룹에게 전달해야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있으며 두렵게 만들 수도 있다. 둘째: 자신의 그룹이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함. 우리는 천성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무오하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잘못도 있을 수 없다. 셋째: 다른 그룹도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하지 않음. 아무리 잘 봐주어도, 다른 그룹들은 무식하고 계몽되지 않았으며 절반의 진리밖에 모른다. 나쁜 시각으로 보자면, 그들은 파괴적이고 위험하며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들이 선한 인간이 되려면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한다.

문화와 사회는 그렇게 '선'과 '악'으로 나뉘게 된다. 오직 그들만이 선하다. 그들은 자신의 용어를 가지고 강력한 힘을 행사하며 사악한 세상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

그것이 모든 세대에 걸친 문명화의 이야기이다. 문명은 침략과 식민지배를 통해 퍼져나갔다. ‘다름’은 제압당해야 한다. ‘미개함’은 문명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술이 최고요 우리의 신들이 참 신이라는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명화의 역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전쟁, 종교재판, 검열, 독재정권과 같은 것들, 뭉뚱그려 이데올로기라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이데올로기란 사상의 틀이요 가치의 틀이다. 이데올로기는 절대적 진리이기에 거기서 나온 사상들과 가치들은 다른 그룹들에게 강요된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말이다. 정치 체계, 경제 철학과 같은 것들 모두가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직업조차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종교의 하부조직인 소종파들도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종교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사상에 대해 열려있지 못하거나 그것에 대해 논의조차할 수 없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제의 오류 가능성이나 그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사상과 이론과 가치체계에 갇혀있다.

인간은 환상 속에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힘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재능과 자신만이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정당화 시키는 재능이 있다.

그것은 지난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다. 알제리의 내전, 르완다에서의 학살,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긴장, 남자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혐오스러울 정도로 잔혹하게 여자들을 다루는 방식, 장애를 가진 약자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동등하게 기록되지 못한 이유. 이 모든 것에서 한 그룹은 옳고 다른 그룹은 틀리다는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자기 고유문화의 절대적 가치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수용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한 변화는 자기 확신과 자기 정체성을 약화 시키는 것이며 의식을 바꾸는 것이고 자신의 보호벽을 낮추는 것이다. 차이를 넘어서 보편적 인간성을 발견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위험한 것일 것이다. 그것은 힘과 특권과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과 깨진 상처, 우리 마음과 문화 안에 있는 악을 직면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다.

- 장 바니에, 『인간 되기』 중에서

단풍 드는 날

도종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放下着)
제가 키워 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김근종 정옥영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곽혜자 김중수 이순정 문복순 최현선 박영희 오자영
 허호범 박성실 조현권 박용진 김용원 김정애

월정헌금:

권미정 김순자 김윤자 박준희 이기분 송임희 최철수 곽권희 황의일
 이현숙 정완수 김재광 노우종 구명자 윤성희 서지은 강미라 무명

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윤 정수복 장미란 김준호 곽혜자 김용진 박효선 노우종
 우주현 배근수 김금순 박용진 김용원 김 극 무명

생일감사헌금:

유영남 정미경 권호천 김인걸 이재운

녹색꿈 헌금:

문금석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박성실	조순덕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이소순	서원금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명순	최종미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옥순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야외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김재광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오복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시영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유경순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증자	이봉배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정현선	조항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에 10월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2. **축구** :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10월 체육행사, 풋살이 다음 주일(31일) 오후4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내 풋살경기장에서 있습니다.
3. **추수감사** : 우리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성스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십시오.
4. **결혼** : 권경선 씨와 유지은 씨가 30일(토)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5. **신앙실천** :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풍요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고쳐 다시 쓰는 생활을 합시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다음 주 : 가나안 속)

* 설거지 봉사 : 방문성 권혁신 정희은 (다음 주 : 이건식 김남홍 이준하)

* 새교우 : 이수진 (7여) 이정림 (7여) 주희선(8여) 고은석(5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